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마음을 잘 쓰면 우주 법계에서 다 돌보게 돼 있어요

좀 더 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문) 직장 생활이 바빠서 절에 나가는 힘이 없지만 나름대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라. 맡겨 놔라 이겁니다. '맡기고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 같아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다 맡겨라. 한군데다 믿고 맡겨라. 믿지 못하면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라.' 이렇게 했죠. 무조건 맡김으로써 그것이 어디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벌써 시각부터 통과가 되고 청각이나 촉각, 후각이 발로가 돼요. 그래 감각이 아주 영리하게 이 안의 심안이 밝아지죠. 그러니 그계 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쪼끔쪼끔, 자꾸자꾸 이끌려 가는 거기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가 자꾸 발로가 됨으로써 그때는 지견으로 들어가고 지각으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오신통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쥐고 그대로 조끔조끔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해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는데 그게 되는 것만이 공부가 잘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안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지 않고 이걸 모르면, 만약에 내가 누구를 구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내가 현실을 구할 텐데 과거로 돌아갈 줄 모르면 어떻게 현실을 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안되는 거고 되는 것도 선업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지혜와 심안이 밝혀져야 하고, 오신통이 다 밝혀져서 그 오신통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자유자재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봐야 됩니다. 보라 하는 거 어찌가 있는 거 같지마는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감사해야죠.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야지 딴 데다간 안 되죠. 그게 자기 나기 이전 조상이나, 자기 아버니까요, 자기

가 현재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들이라면 그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가 없고 가만히 능력만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꿰어 가지고 굴리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심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심력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마음내는 거는 자꾸 그걸 역할을 해서 굴려서 쓰거든요. 그것이 법이라고 보죠. 우리가 몸을 활용하고 이러한 것도 활용이구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놓는다. 감사하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발견하

는 데에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둘이 아닌 까닭이 왜 그렇게 둘이 아닌 까닭이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50% 물질세계 요것만 보니까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50%를 마저 알아야 그게 죽어가고 살아나오고 하는 그 연결된, 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연결된 이 자체를 다 통틀어 봐야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둘이 아닌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이 우뚝 서려면

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좀 아프다 싶으면 은근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마음 중심이 우뚝 설 수 있을는지요.

답) 부처님의 법은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그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하는 과정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겁도 나지 않아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까짓 겁날 것도 없고 또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 게 없어요. 진짜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븐이 망가져서 오븐을 다시 새 걸로 바꿔다 놓는 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걱정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한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생각, 한생각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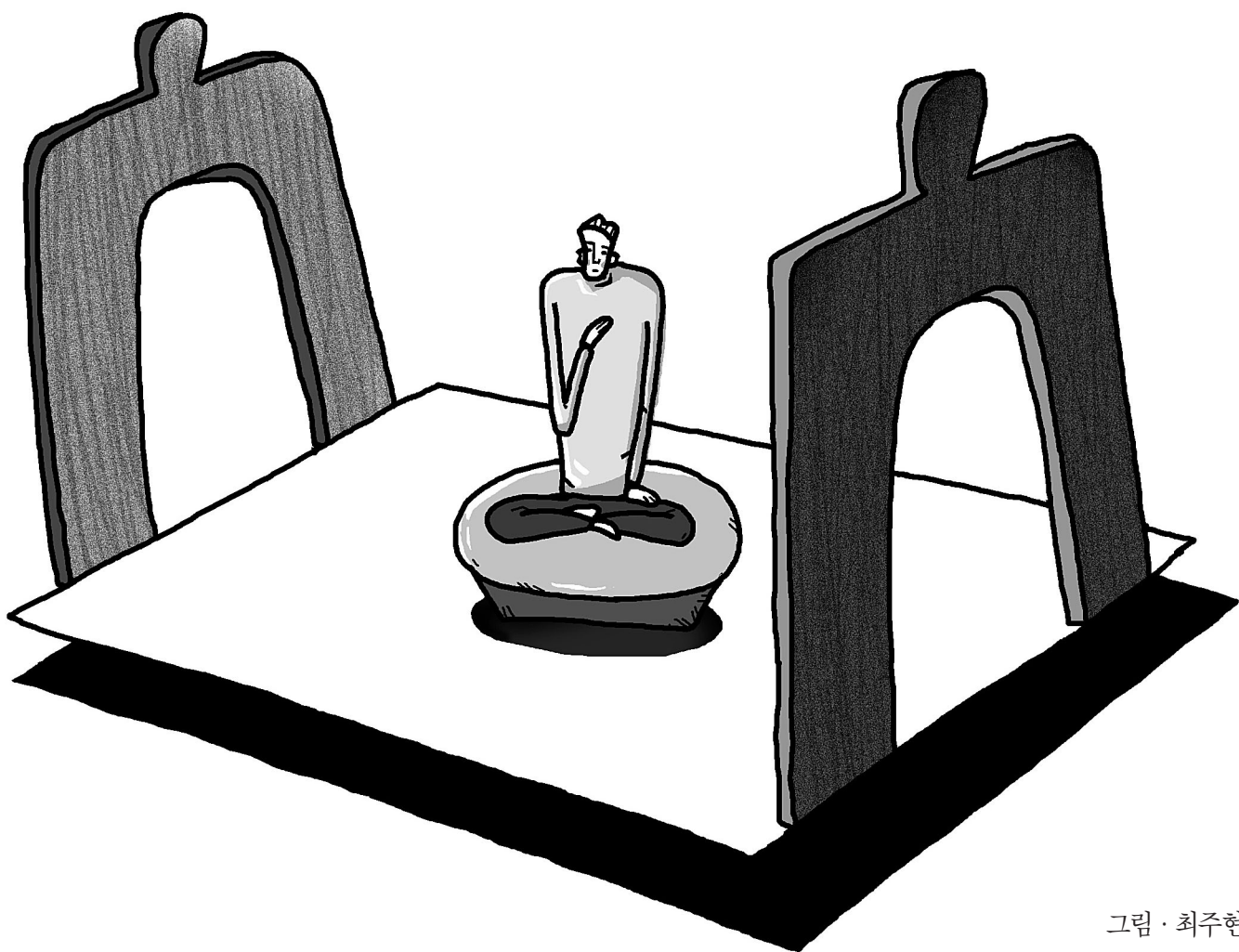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스로, 스스로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웅쳐매 놓고 있고, 병자로 웅쳐매 놓고 있는 거지 누가 병을 갖다 준 겁니까, 뺏어 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린 겁니다. 과거의 자기가 한 대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난과 병고와 그 모진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생각이 그 고통과 그 문서를, 종 문서를 한꺼번에 태워 버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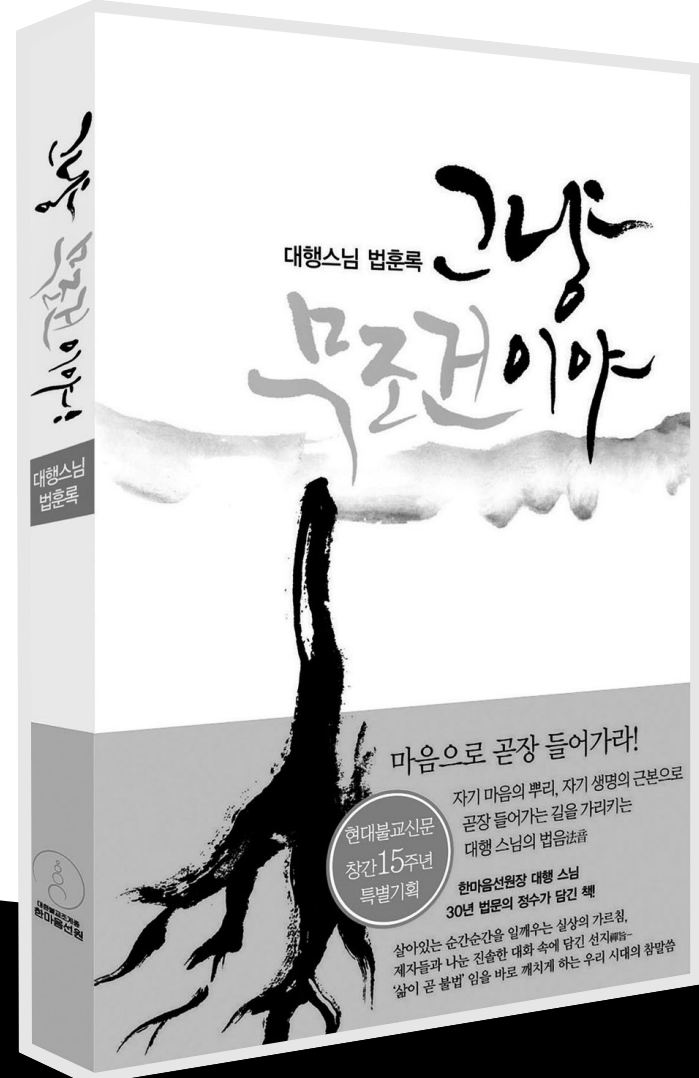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없다 이랬죠? 왜 그런가. 한 찰나 살림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죠, 우리의 살림살이는 한 찰나요, 한 인생 살아나가는 텐 한 철이라고, 여러분이 한 찰나의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요리 변덕 소리 변덕, 변덕쟁이거든요. 변덕쟁이, 도깨비 장난, 귀신 장난감.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러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변동이 무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공에 들어서 가만히 있다면 그건 목석인 거예요. 또 너무 말을 하고 너무 아는 척을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그건 귀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걸리지 마세요. 생각이 자꾸 나결랑 그대로 그냥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버려두라고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저렇다 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괜히 '고(苦)덩어리' 속에서 그 의식이 들고 나면서 괴로움을, 자꾸 또 즐거움을 주고 이러니까 즐겁더라도 그냥 빙긋이 웃고 말고, 괴롭더라도 빙긋이 웃고 말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하니까. 이열치열. '네 속에서 나온 거는 네 속에서 해결해야지, 딴 속에서 해결 못한다. 나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 네가 무체로서의, 즉 말하자면 큰 부처로 보이더라도 난 거기에 속지 않아.' 이렇게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들고 나면서 그 전자의 종 문서에 의해서 그 자기가 한 것대로 문서를 짚어지고 나온 데서 들고 나는 것에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똑바로 보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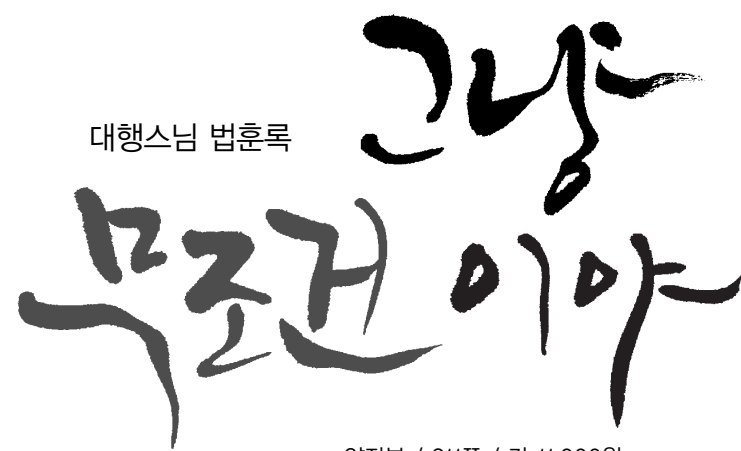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